9/6/26

설교 제목: 고백에서 제자의 삶으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6 장 21-28 절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막 8:31-9:1; 눅 9:22-27)

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는 이방 신전들로 가득찬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같은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보다 심화 단계의 제자 교육 훈련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두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하실 사역인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자신들의 생업도 다 팽개친채 몇 년째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뒤로 한 채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올 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의 일생을 건 예수님이 뜬금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니요?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삼일에 부활하신다고 하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자신들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황금 왕관에 비단 옷을 차려 입고 왕노릇 하기 위해 이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입술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 등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화를 내며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자신이 이 일을 막을 수 있기나 한 양 "그 일이 당신과는 전혀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히 자신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훼방하기 위해 베드로를 이용해 교묘하게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나의 장애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난 받고 죽어야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 책망입니다.

조금 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반석을 뜻하는 '게바(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은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여 또 다른 종류의 반석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벧전 2: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예수님께 고난없는 영광과 왕권을 제공하려 했던 사탄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역경 가운데서의 적극적인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난 당하신 것처럼 그들도 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제자들이기에,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수난 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성 감정 의지 등이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제자가 되는 소극적인 시도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도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해왔던 터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험난한 수난의 길을 가장 가치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및 인격의 중심 또는 사람의 자아까지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인격적인 자아 곧 지성 의지 감정 등을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음에 넘기우면 오히려 종말에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참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시적 목숨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끼?
우리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당신이 이 일을 위해 왕권을 가지고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백보좌에 앉아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비록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지라도, 각 개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삶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광스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 하신 것,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도들 심령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 하늘 우편에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가고 계신 것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오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지만,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참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가십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요!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